

추석 선물 '5~10만원 상품권·과일' 대세

물가 상승이 명절 선물 금액과 품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롯데멤버스는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매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물가 상승이 이번 명절 선물 금액(68.5%), 품목(54.0%), 개수(50.4%), 대상(44.0%) 등에 두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식품매장에 추석 선물용 과일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품 선물세트(16.2%), 커피·베이커리 선물세트(12.8%), 수산 선물세트(12.6%), 건조식품 선물세트(11.9%), 위생용품 선물세트(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추석 설문 결과와 비교해볼 때 상품권(+3.4%)의 구매 의향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 외 주류(+3.2%포인트), 과일(+3.1%포인트), 건강기능식품(+2.1%포인트), 정육(+2.8%포인트), 가공식품(+1.9%포인트)

선물세트 구매의향도 지난 추석보다 증가했다.

올해 추석 구매 예정인 선물(중복응답)로는 상품권(37.7%)과 과일 선물세트(37.7%)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33.0%), 정육 선물세트(31.6%), 가공식품 선물세트(23.2%), 주류 선물세트(16.6%), 전통식품 선물세트(16.2%), 일상생활용

올해 추석 구매할 선물세트 가격대(중복응답)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31.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5.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2.6%)',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10.0%)',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7.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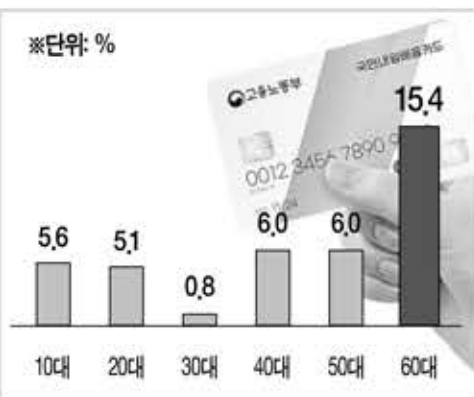
직업훈련 받는 60대 급증

한국에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의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했다.

40대와 50대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 수도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 대비 각 1만 2,000여명씩 늘어 약 6.0% 증가를 보였다.

반면, 15~19세의 10대(5.6%, 1만 8,015명), 20대는(5.1%, 32만 7,556명), 30대(0.8%, 20만 5,619명) 전년 대비 감소했다.



▲ 2022년 대비 연령대별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자 증가율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41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수준인 30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줬다. 이는 올해 만 60~68세로 60대에 안착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과 노인고용률은 각각 43.4%,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 세수 59조 핑크 "추경은 없어"



▲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저하로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일러스트=donga.com

올해 한국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법인세·소득세 등 주력 세금이 덜 걷혔고,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40조 5,000억원)보다 59조 1,000억원이 줄어 341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당초 올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14.8%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건전 재정 기초를 천명했지만 세입 예측 실패로 빛이 바랬다.

세수가 부족한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나빠져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등 주력 세수가 일제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이월 3대 세목은 종전 전망에 비해 52조 4,000억원(-16.4%)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윌돈이 있는 기금과 정부가 안 쓰고 남긴 돈(세계잉여금)에서 끌어와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건전 재정 기초를 지키기 위해 국제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없이 세수 부족 사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